

\*엄마 지정대사

방안에서 가방을 챙기다 말고 올려오는 전화를 받는 민채.

민채의 엄마가 이른 새벽 회사 사무실에서 단정한 오피스룩을 입고 전화를 받는다.

엄마

민채야, 약은 먹었어? 엄마가 오늘 오전 회의가 있어서  
너 못챙겨 주고 먼저 나왔어. 미안해.

민채

응, 방금 약 먹었어.

엄마

엄마는 걱정된다.. 너 중요한 시험날, 또 공항장애 도질까봐.. 너 폐쇄된 공간에  
있으면 저번에 너무 힘들어 했던 게 기억이 나서..

민채

아냐, 엄마.. 오늘은 괜찮을 거야..

엄마

그래, 약 먹었으니까.. 혹시라도 시험 문제 풀다가  
너무 힘들면 주변에 힘들다고.. 꼭 말해. 참지말고. 알았지?

민채

응.. 엄마. 그럴 일 없을거야. 회의 잘 하구 이따 봐요.

엄마

그래, 올 아들.